광주 공무원들 연초 업무 과중 호소 시민들 "한시적 과중…책임감 없다"

"시책·공모 발굴 힘들다" 구청 게시판에 잇따라 글 올려
"시민 위한 1년 밑그림인데 편한 길만 찾아서야" 지적도

광주지역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번아웃'이 심각하다는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1일 광주 북구청을 시작으로 서구, 광산구 등 자치구 각 구청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잇따라 업무 과중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연초 시책 발굴 시기에 일선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며 대안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북구청 내부 게시판에는 "형편없는 급여, 열악한 사무환경, 끊임없는 신규사업 발굴"이라는 익명 공무원의 글이 올라왔다.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이고, 직원 간 불화와 건강 악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글 작성자는 "'탈북'(북구를 벗어나야 한다)만이 해결책이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어 서구와 광산구 내부 게시판에도 잇따라 '번아웃'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서구의 한 공무원에 따르면 최근 서구 내부 게시판에는 '북구만의 문제일까? 과연 서구는'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앞서 북구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은 업무 과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는데, 200여개가 넘는 추천수를 받고 수십개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에서도 "끝없는 지시에 공직사회에 반감만 생긴다", "우리도 사람인데 왜 공무원의 희생과 고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본연의 업무 외 보여주기식 행사, 이벤트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등 성토가 이어졌다.

광산구의 내부 게시판에도 최근 '넌 탈북, 난 탈광'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시책 사업은 매년 마른 걸레 비틀어 짜듯 만들어지고 대부분 무예산 사업으로 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시책과 공모 사업을 과감하게 줄이고 공정한 업무 분장, 불필요한 업무 경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지난 24일 '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구정 주요 4대 업무 일하는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비사업 발굴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없는 시책사업을 폐지하며 각종 업무보고를 축소·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연초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면서 발생하는 한시적인 업무 과중일 뿐이라는 점에서 "책임감 없는 말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무원은 '철밥통'인데 무엇이 아쉬워 앓는 소리를 내느냐"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상익(30·광주시 광산구)씨는 "다른 직업도 바쁜 시기는 다들 있게 마련인데,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면서 투정부리는 건 납득가지 않는다"며 "더구나 시책 발굴은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1년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인데, 당장 몸이 힘들다고 편한 길만 찾으려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유연재 기자 yjyou@

봄을 즐겨요 2월의 마지막 휴일인 26일. 완연한 봄 날씨속에 광주 북구 패밀리랜드를 찾은 행락객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학생 참여 다룬 책 나왔다

5·18고등학생동지회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 펴내

1980년 5월 당시 10대의 나이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던 초·중·고등학생들의 활동을 다룬 책이 처음으로 발간됐다.

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는 27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1층에서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전남 시위 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10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책에는 최연소 희생자인 전재수(당시 효덕초 4년) 열사와 5월 27일 끝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했던 박성용(조대부고 3년), 안종필(광주상고 3년) 열사를 비롯해 박기현(동신중 3년), 박금희(춘태여상 3년), 전영진(대동고 3년), 박현숙(신의여고 3년) 열사 등 21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광주·전남 뿐 아니라 5월 27일 '광주 학살'을 규탄하며 연대시위를 펼친 전주 신흥고 학생들의 이야기도 다뤘다.

책에는 이들의 5·18 이전의 삶부터 항쟁 기간 동안 활동, 이후의 삶을 기록했다. 구속·부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당시 이야기를 듣고 정리했으며, 사망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의 증언을 받아 글로 옮겼다.

동지회는 10일간 항쟁을 기록한 상황판을 만들어 시간대별, 지역별로 구술 내용을 확인해 객관적인 사실과 개인적인 경험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정리했다.

1980년 당시 대동고 영어교사였던 박석무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자문을 받아 책의 방향성과 구성을 짰다고 동지회는 전했다.

책은 지난 2019년부터 집필 작업을 시작해 4년여만에 출간됐다.

5·18고등학생동지회 또한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당시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을 중심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해 동지회를 창설한 것이다. 현재 동지회는 최치수 5·18고등학생동지회 회장을 비롯해 8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됐다.

최 회장은 "5·18 당시 광주시민이 한 마음으로 민주화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는 10대 학생들의 활약도 뜻깊었다"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해 한 몸을 바쳤던 학생들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43년이 세월이 지나면서 1980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도 차츰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도 책을 쓴 계기가 됐다.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이들의 구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책 말미에 5·18 관련 광주·전남·북 90개 학교별 사망·구속·부상자 293명의 명단을 실은 점에도 이 같은 사명감이 담겼다. 동지회는 이들의 이야기를 30여명씩 묶어 시리즈로 출간하겠다는 각오다.

동지회는 출간기념회 이후 곧장 2편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다. 2편에서는 5·18 당시 활약했던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내달 4일 개방 무등산 정상 다문화 가족 참여 가능

다음 달 4일 열리는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다문화가족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 시설 보안상 외국인 출입은 제한되지만, 다문화가족은 아직 귀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 출입 허용은 2011년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시작된 뒤 처음이다.

외국인들의 정상 방문은 여전히 제한된다.

외국인 제한 방침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는 차별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벚꽃 2~3일 빨리 핀다…여수 3월 28일·광주 29일

봄꽃의 대표주자인 벚꽃이 올해는 여수에서는 3월 28일, 광주에서는 하루 뒤인 29일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기상정보회사 '153웨더'는 3월 광주·전남지역 기온은 평년(1991~2020년 기준)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벚꽃 개화시기를 평년보다 2~3일 빠를 것으로 예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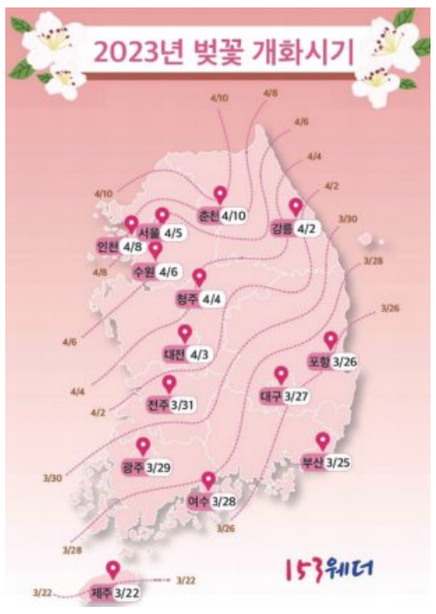
2월 중순까지 평년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인 기온이 3월에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벚꽃 개화시기도 빨라진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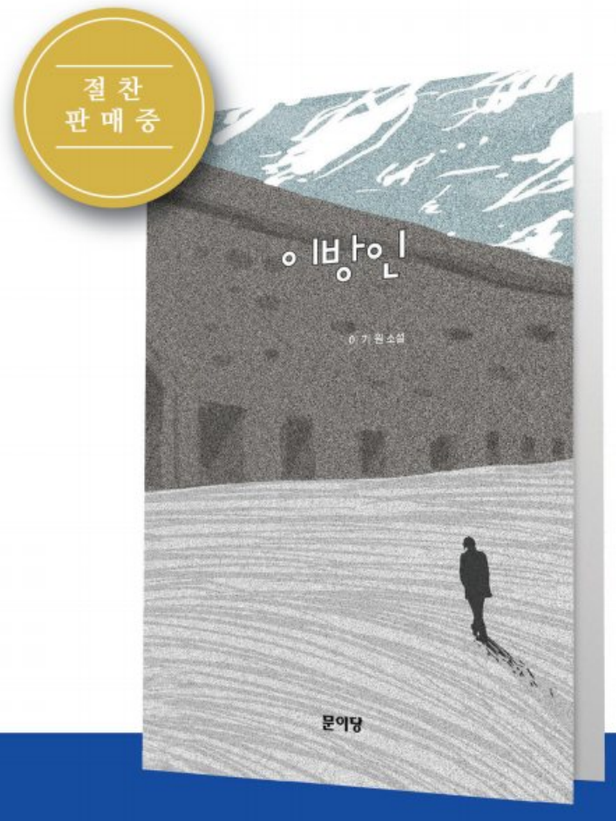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여수의 벚꽃 개화가 평년(3월 31일)보다 3일 앞서고 광주도 평년(3월 31일)보다 2일 앞서 필 것으로 내다봤다.

벚꽃의 개화 관측 방법은 표준목 한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완전히 피었을 때이다.

벚꽃의 절정시기는 개화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광주·전남의 벚꽃 절정은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으로 전망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 점 판 매 | 영풍문고 충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